

'94 한미 식물검역회의를 마치고

참다래 가지 상추 올가을 대미수출 가능
미국은 사과 배 복숭아등 개방 요구



홍 인 식
국립식물검역소 소장

198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자국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식물검역 관련 관심사항들을 한미경제협의회 및 무역실무회의 등의 통상회의를 통하여 해결을 시도해 왔다.

이에 우리측은 식물병해충에 관한 기술적이고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식물검역문제가 한·미 양국간 통상 현안으로 비화되어 비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국간 식물검역 전문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다.

초년도인 90년에는 5월과 12

월, 2회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91년 이후부터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미국과 한국을 교대로 오가며 회의를 갖고 있는데 회의의 공식 명칭을 「한·미 식물검역전문가회의」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양국간의 식물검역 현안들을 협의해 오고 있다.

미국의 수입허용 요청 현황

미국, 호주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 산 농산물의 대외수출을 위해 수입국에서 문제시하는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소독처리방법(증열처리, 저온처리, 고열건조(Kiln Dry)처리 및 MB(훈증제)처리 등)을 개발하여 이러한 소독처리를 조건으로 많은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이들 소독처리방법의 효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90년 5월 최초로 한미식물검역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미국측이 우리측에 대해 수입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왔던 품목 및 소독처리조건들을 정리해 보면 탈각 호두의 MB훈증후 진공포장, 미탈각 호두의 MB훈증, 파파야의 증열처리, 소나무 제재목의 고열건조처리 등이 있다.

우리 식물검역당국은—미국측이 제안하고 있는 소독처리방법들이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다 근년의 세계적인 시장개방화 추세를 감안할 때—한미 관계 유지의 차원에서 미국측의 요청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으로, 미국측이 제안한 소독처리방법의 식물검역상 우려병해충의 사멸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문헌 및 연구자료의 검토, 미국내 소독처리시설 현지확인 및 우리측 전문가에 의한 살충효과 확인시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의 요구현안중 현재까지 타결된 것으로는 탈각호두의 MB훈증처리후 진공포장 조건부 수입금지 해제('94.1월)가 있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의 및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식물검역당국은 미국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태국, 칠레 등 세계 12개 국가로부터 총 20개 품목에 달하는 농산물의 수입금지 해제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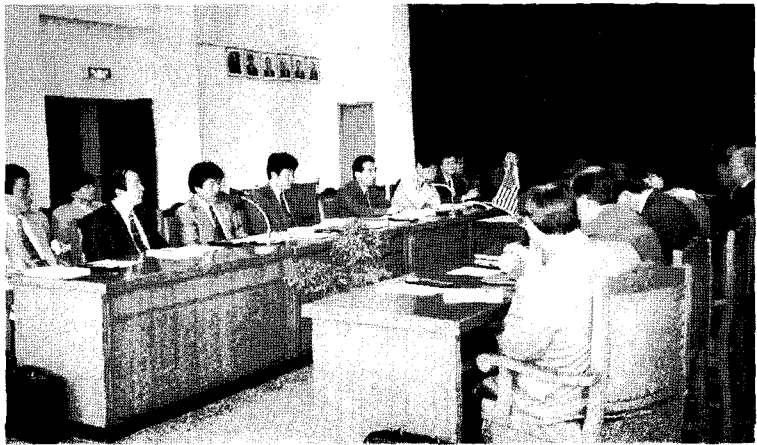
우리측의 수입허용 요청 현황

지금까지 우리측이 미국측에 대해 수입허용을 요청한 농산물에는 온주밀감 사과 단감 및 감, 참다래 등의 과실류 5종과 양파 딸기 도라지 가지 호박 참외 등 채소류 19종이 있다.

이중 채소류 11종(양파 냉이 썩 더덕 근대 양갓냉이 딸기 토란 취나물 고들빼기 도라지)은 이미 수입이 허용되었고 나머지 채소류에 대해서는 미국측에서 병해충위험도 평가를 실시중에 있다.

과실류의 경우를 보면 ①온주밀감은 지난 93년 3월 회의시 그동안 미국측이 우려해오던 감귤궤양병에 대한 식물검역상의 안전조치(수출단지 지정, 재배중 박테리오파이지테스트 및 선과장에서 과실 표면소독처리 등)를 취한다는 조건으로 미국측이 수입을 허용한다는 기본방침에 이미 합의하고 세부 검역요령(Work Plan)을 제정하여 미국내 입법 공고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②사과의 경우에는 지난 91년



지난 6월 2일 개최된 한·미 식물검역전문가 회의의 장면

부터 경북도의 주관하에 미국측이 수입금지 사유로 지적하고 있는 3가지 해충(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뱃나무응애)의 재배중 방제방법(봉지씌우기 등)을 경북대학교에서 연구해 왔다.

지난 해에는 우리측의 제안에 따라 미국측 전문가가 직접 시험에 참여하여 한미 전문가간의 공동연구를 실시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미국측에 제공하고 수입허용을 요청중에 있다.

③이밖에 단감 및 감과 참다래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측이 제공한 각종 병해충 관련자료를 근거로 미국측에서 병해충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산 농산물의 수입허용요청 이외에도 우리측은 그동안 대미 수출배의 봉지씌우는 횟수 감축(2회→1회) 및 대미 수출 밤의 선적전 MB훈증처리 면제 등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바 있다.

'94한미 식물검역회의의 결과

금년도 한·미 식물검역전문가 회의는 지난 6월 2~3일 2일간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국립식물검역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 관심사항 협의결과

①한국산 사과의 경우 93년에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시험한 봉지씌우기에 의한 재배적 방법(제도적 접근방법)이 미국측 우려해충 3종(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뱃나무응애)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년도 사과재배 농가에서 실증시험을 하여 그 결과가 작년도의 소규모시험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될 때에는 95년산부터 미국으로 수출한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금년('94)산 사과의 경우에는 해충 구제를 위하여 1.1℃에서 40일간 저온저장 하였다가 MB훈증소독하는

조건으로 미국측이 우선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시설의 미비로 인해 실용화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②제주산 온주밀감의 경우에는 감귤궤양병을 검정하기 위한 '박테리오파아지 테스트 방법'에 합의하고 미국측이 빠른 시일내에 대미수출검역요령(Work Plan)을 승인(관보에 공고)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늦어도 95년산 온주밀감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미수출검역요령의 승인전이라 하더라도 미국내 식품전시회 개최용 감귤은 미 동식물검역소(APHIS) 한국주재관 입회하에 파아지테스트 등을 실시한다는 미 농무성의 특별허가를 받아 미국내 반입이 가능토록 미 동식물검역소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③참다래와 가지, 상추는 미국측이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하고 차기 개정시 관계규정을 입법에 고기로 약속함으로써 금년 가을경에는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대미 수출용 배의 봉지씌우기와 관련해서는 93년도에 시험적으로 시행한 '1회 봉지씌우기'를 금년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선과장 검사시의 표본추출비율을 12%에서 6%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우리나라산 배의 지속적인 대미수출이 원만히



대미 수출 배 재배지 검사 장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⑤그외에 한국측이 미국측에 대해 수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감(단감 포함) 호박 오이 참외 수박의 경우는 현재 미국측에서 병해충 관련자료를 검토중에 있으므로 자료검토가 끝나는데로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호박 오이 참외 수박은 미국측이 우려하는 호박과실파리의 기주식물이라는 하지만 이 해충의 발생시기가 7월이후인 점을 감안하여 6월말 이전에 생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측 관심사항 협의결과

①고열건조(Kiln Dry)처리된 소나무제재목(낙엽송 포함)의 경우, 고열건조 처리가 한국측에서 우려하는 소나무재선충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데는 합의하였으나 우리측이 제시한 수입검역 조건을 아직 미국측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는데로 다시 검역조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②하와이산 파파야는 우리나라에 없는 꺾꽂이파리, 지중해과실파리, 오이과실파리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이다. 미국측은 이들 해충에 대한 증열처리(VHT) 조건부 수입허용을 요청중에 있는데 미국측이 제안하고 있는 증열처리의 살충효과 확인을 위한 한미공동시험 설계서에 관한 협회가 있었으나 상호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미국측이 한국측에서 제시한 일부 병해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③미국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이 사과 배 봉숭아 넥타린 살구 자두의 수입허용을 요청해왔으나 한국측은 이들 과실을 가해하는 미국내 병해충에 관한 기초자료를 우선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한

국측이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④위의 과실들외에 미국산 포도는 현행 우리나라 법규상 수입 금지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측이 검역증명서(위생증)상에 '지중해과실파리 및 꿀과실파리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산임'을 명시해오면 한국측에서 항온기 배양 검사를 실시한 후 통관시켜 주기로 했으나 포도는 96년 개방예정 품목으로 되어 있다.

⑤이외에 가공산물인 착유박, 식물성 펠렛류, 진공포장된 견과류에 대해서는 '검역증' 대신에 '수출증명서'를 첨부하겠으니 이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식물성 펠렛류인 면실피펠렛은 자료 검토결과 제조과정중의 처리온도가 120℃전후까지 상승함으로써 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온도라고 판단하여 수출증명서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밖의 가공산물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품목별로 가공공정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오면 성실히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금년도 회의는 수년에 걸친 UR 협상이 종료된 후 처음 열리는 한미식물검역회의로서 예상했던 대로 미국측의 자국산 농산물 개방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된 회의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파파야, 소나무제재목, 호두 등 기존의 수입금지 해제요청 품목외에 사과, 배, 복숭아, 벵타린, 살구, 자두등 새로운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해 온데서도 쉽게 읽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막대한 자금력과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넓고 광활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농업대국인 만큼 양국간에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식물검역상의 장애요소를 상호 동등한 수준에서 해소한다하더라도 열악한 농업 여건을 갖춘 우리나라산 농산물이 미국산 농산물과 경쟁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이번 회의에 임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 여건이나 규모의 영세성만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맹목적인 '쇄국(?)'의 길만을 걸을 수만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우리농민들은 보다 과학적인 영농을 통한 품질개선 등 영세한 규모 속에서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거역하기 힘든 세계적인 농산물개방화 시대에도 생존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식물검역 당국은 어떻게 하면 위협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위험으로부터 국내 농작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자국산 농산물 수입개방 요구에 응할 것인가를 능동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검역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측이 제안한 소독처리방법이 과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식물병해충을 완전하게 사멸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각종 병해충 관련 문헌 및 연구자료의 검토, 우리측 전문가에 의한 살충효과 재확인 시험 등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사과, 온주밀감 등 우리나라산 농산물의 대미 수출길 모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키위, 상추, 가지 등 일부 품목의 미국내 수입 허용 약속과 대미 수출 배의 1회 봉지씌우기 계속 시행 등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등 농업대국들의 자국산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날로 거세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더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병해충에 관한 기초연구가 보다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농약정보**